

'화려한 휴가' 세트장 헐어야 하나

전국 730만 관객을 동원하고 지난 18일 종영한 5월 관련 영화 '화려한 휴가' 세트장이 잠정 폐쇄돼 아쉬움을 주고 있다.

영화 제작사인 '기획시대'는 지난 20일 광주시 북구 오룡동에 위치한 '화려한 휴가' 세트장 입구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세트장을 잠정 폐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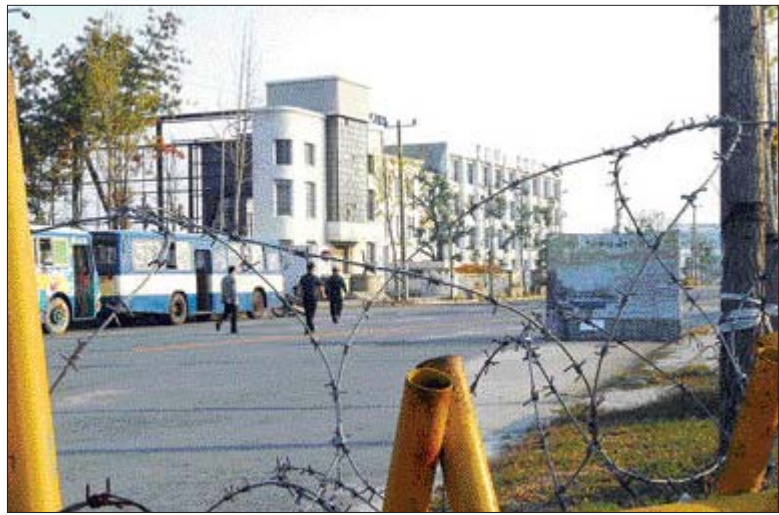
촬영이 끝난 지난해 11월 28일부터 경비원 2명을 고용, 세트장을 관리해 왔던 기획시대측은 최근 밀린 전기료와 인건비 등이 7천만원에 달해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 세트장을 폐쇄했다.

지속적으로 광주시에 기증 의사를 밝힌 기획시대측은 시가 세트장 운영에 난색을 표하자 우선 부지 계약이 만료되는 내년 3월말까지 세트장을 잠정 폐쇄한 후 활용 방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3억원의 예산을 들여 철거할 예정이다.

현재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는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는 확정된 사업이 없어 제작사측에 2~3년간 부지 사용권을 허락한 상태다.

기획시대가 지난해 5만 6천㎡ 부지에 30억원을 투자해 세운 세트장에는 지금까지 모두 20여만명이 다녀갔으며 일요일인 지난 21일에도 1천여명이 방문했다.

이런 상황에서 폐쇄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지역민들은 안타까워 하고 있다. 영화 흥행으로 모처럼 관심을 받고 있는 5·18을 널리 알리고, 체험



지난 20일 잠정 폐쇄된 광주시 북구 오룡동 '화려한 휴가' 세트장 입구에 출입을 금지하는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20여 만 명 방문한 '5월 기억의 공간' 광주시에 기증 불구 관리비 없어 폐쇄 '시대극·CF 촬영 등 활용안 마련 시급'

하게 하는 공간으로 세트장을 활용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에서다.

또 5월 관련 영화인 '26년'을 준비 중인 '청어람' 등 영화 제작사들도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다.

윤장현(57) 광주·전남비전 21 이사장은 "세트장은 5월을 상징하는 기억의 공간으로, 또 수익모델 창출을 통한 비즈니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광주시와 영화

제작사에게만 문제를 맡길 게 아니라, 철거가 되기 전 5·18 재단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이 토론에 나서 의견을 나누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기획시대 김도일(45) 이사는 "시가 세트장을 인수해 5·18 관련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5월 관련 영화 뿐 아니라 70~80년대 시대극, CF 촬영 등을 적극 유치하는 등 활용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시설물 보수를 해야하는 등 예산이 투입되고 운영컨텐츠도 빈약해 광주시에 인수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제작사 측이 민간 단체 등과 운영 계약을 체결할 경우 시에서는 토지 사용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전사모 '화려한 휴가'에 300억 소송 준비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전사모)'이 영화 '화려한 휴가'를 상대로 최고 300억원의 소송을 준비 중이다.

전사모는 최근 카페 자유게시판에 올린 '전사모의 외침'이란 글에서 "화려한 휴가 제작사와 제작진·감독·출연배우 등이 왜곡된 사실을 진실을 숨기고 전사모를 정신병자로 치부해 그들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송으로 제작사 등으로부터 기자회견을 통한 대국민 사과와 100억~300억원의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아낼 복안이다.

이 같은 실이 알려지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와 일해공민반대 경남대책위는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남뉴스

사립학교 교사 '뒷구멍 채용' 여전

인사위 심의조차 안해...전교조 "시교육청 관리감독 강화해야"

광주시내 사립학교의 상당수가 교사 채용을 할 때 인사위원회 심의를 하지 않거나 관련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교육청이 장휘국 교육위원에게 제출한 '사립학교 교사 공개채용 현황(2007년 3월1일 이후)'(표)에 따르면 중학교 23곳, 고등학교 38곳 등 올해 교사를 채용한 61개 중·고등학교 중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곳이 18곳(30%·중학교 8곳, 고등학교 10곳)에 달했다.

또 인사위원회 규정에 교사 채용 관련 조항에 대한 언급이 없는 학교도 전체의 40%인 27곳(중학교 10곳, 고등학교 17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 2007년 3월 1일자 이후 사립학교 교사 공개 채용 현황

구분	총 학교수	교사 채용 학교수	공개 채용 여부		인사위원회 심의 여부		인사위원회 교사 채용 규정 여부	
			공개 채용 학교수(%)	미공개 채용 학교수(%)	심의를 학교수(%)	미심의를 학교수(%)	규정 미준 학교수(%)	규정 준수 학교수(%)
중학교	26	23	22(96)	1(4)	15(65)	8(35)	16(62)	10(38)
고등학교	42	38	37(97)	1(3)	28(74)	10(26)	25(60)	17(40)
총계	68	61	59(97)	2(3)	43(70)	18(30)	41(60)	27(40)

이와 관련, 전교조 광주지부(지부장 박재성)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립학교 교사 채용 비리의 근절을 위해 시교육청이 사립학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며 "사립학교 교사도 공립학교 교사 채용과 동일한 절차와 기준을 거치는 것이 교사 채용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유일한 대

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지난 18일 정식교사로 채용해주겠다고 속여 교사 희망자들에게 1인당 수천만원씩의 돈을 받아 가로챈 광주 S학 교사로 공립학교 교사 채용과 동일한 절차와 기준을 거치는 것이 교사 채용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유일한 대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가전로봇 100개 기업 유치

2009년부터 4년간

600억원 투입 육성

광주시는 2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전로봇 제품화 기술 국제 워크숍'을 갖고 가전로봇산업을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정해 2009년부터 4년간 600억원을 투입해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 기간 동안 기존의 생활가전 기기에 지능·통신·이동 기능을 접목시키는 등 가전로봇산업을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기업지원 서비스로 나눈다. 사업이 완료되면 100여 개의 가전

로봇 전문업체가 광주에 유치될 전망이며, 매출액 1조원에 2천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이날 워크숍에서 '가전로봇 및 광주 로봇개발 효과'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한 박종오 전남대교수는 "중국 등의 저가 가전제품의 급속한 국내유입에 대비하기 위해 광주는 지 금부터 생활가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워크숍에는 일본 산업기술 총합 연구소 지능시스템 연구부문 마쓰이 토 시히로 팀장, 중국 하얼빈 공과대학 푸 이리 교수 등 해외 전문가가 초청강연을 시작으로 로봇산업연구조합 이사장, KIST 교수, 전자부품연구원 본부장 등의 국내 전문가가 다수 참석해 지능형 로봇 중에서 특히 가전로

봇을 광주지역에서 집중 육성해야 할 당위성과 비전을 제시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활동보조 서비스 확대" 장애인단체 회견

'광주 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 10여 명은 23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와 의회는 장애인들이 충분한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를 2013년까지 광주 전체 시내 버스의 절반 수준으로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안현주기자 ahj@

외국인 유학생 '1일 시티투어'

지역 대학 240명 참가

광주시는 전남대 등 지역 대학에 유학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1일 시티투어'를 실시한다. 이들이 '민주인권평화도시' 광주를 잘 이해해 귀국 후에도 광주를 널리 홍보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에서다.

우선 240명이 오는 26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참가한다. 오전 9시 30분 광주시청에서 박광대 시장의 인사말과 시청 홍보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기아자동차 견학, 디자인비엔날레 관람, 삼성전자 견학, 국립 5·18 묘지 참배순으로 진행된다.

광주시가 지난 4월 실시한 외국인 유학생 현황조사에 따르면, 1천455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광주시내 11개 대학에 다니고 있다.

대학별로는 전남대 359명, 조선대 319명, 광주여대 227명, 호남대 217명, 광주대 149명, 기타 184명 등이다. 국적별로는 중국 1천63명, 베트남 283명, 기타 109명 등이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문화수도 추진단 사진전·체험행사

문화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광주시 동구 관산동에 위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홍보관'에서 아시아 문화를 테마로 한 사진전과 체험행사를 갖는다.

추진단은 아시아 문화를 담은 국내 유명 사진작가들의 작품 69점을 전시, 오는 30일까지 홍보관 3층에서 첫 번째 아시아 사진전을 개최한다.

25일부터 11월 11일까지는 두 번째 아시아 사진전인 '한·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사진전'을 연다. 전시회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한국과 일본의 국보급 문화유산을 국내 유명사진작가들의 카메라를 통해 새로운 시각으로 만나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매주 주말 홍보관 1층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무료로 어린이 교육용 체험행사가 열린다.

매주 토요일·일요일에 마련되는 '재활용 예술놀이'는 생활에서 발생한 폐품을 활용해 인형, 책갈피, 액자 등을 만들며 예술·공예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행사이다.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나만의 소품 만들기'가 열려 아로마 향초 만들기, 한지 공예, 칼라믹스 도장 만들기 등 공예체험을 할 수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부동산 자리의 차별화
高品質 상동일본식전문점 유전

신입특선

- 1인용 방 1개 19,000
- 2인용 방 1개 26,000
- 3인용 방 1개 32,000
- 4인용 방 1개 38,000
- 5인용 방 1개 44,000
- 6인용 방 1개 50,000
- 7인용 방 1개 56,000
- 8인용 방 1개 62,000

본점 및 다국 모사점입니다.

'폐식용유를 경우로' = 바이오디젤 제조기

전남지역 대리점 모집

BIOKIT 바이오킴트(주)